

<번역 논문>

성서 번역에서 인지적 이슈들 — 인간 경험의 정황 안에 있는 성서 본문 —

대니얼 쇼(R. Daniel Shaw), 대니 딜로우치(Danny DeLoach),
조나단 그라임스(Jonathan Grimes), 존 루치비아(John O. Luchivia),
셰릴 실저(Sheryl Silzer), 에이미 웨스트(Amy West)*
조재천 번역**

1. 서론

정신과 뇌의 관계는 복합적이다. 그 관계는 성서 번역 작업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성서 번역은 인지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인지적 과정에 대한 연구는 바벨탑 사건 이후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여러 학문 분

* R. 대니얼 쇼(danshaw@fuller.edu)는 풀러신학교 타문화학 대학원의 인류학과 번역 교수이고 SIL-International의 인류학 자문위원이다. 쇼 박사는 1969년부터 1981년까지 사모아에서 번역가로 일했고 1973년부터 SIL 인류학 자문위원으로, 1982년부터 풀러신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니 딜로우치(danny_deloach@sil.org)는 SIL-International의 성서 관여 자문위원이다. 딜로우치 박사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성서활용을 위한 전문가로 활동했다. 조나단 그라임스(jonathangrimes@fuller.edu)는 SIL-International의 언어학자/번역자이다. 그라임스 박사는 남아시아에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언어 조사 전문가로 활동했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번역 프로젝트 팀원으로 일하고 있다. 존 O. 루치비아(John_Ommani@sil.org)는 SIL-International의 세계 성서 서비스 부장이다. 루치비아 박사는 1991년부터 현재까지 케냐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아 왔다. 셰릴 실저(Sheryl_silzer@sil.org)는 세계 언어 서비스의 다문화 자문위원이다. 실저 박사는 1968-1972년 콜롬비아에서 SIL과 함께 일했고 1974-1990년 인도네시아에서 일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라 미라다의 탈봇신학교 겸임교수이다. 에이미 웨스트(amy_west@sil.org)는 SIL-International의 성서 관여 자문위원이다. 웨스트 박사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에서 인류학자로 일했고, 최근에는 대부분 시간을 “문화가 성서를 만나다”(Culture Meets Scripture) 세미나를 자문하고 여행하면서 보낸다. R. D. Shaw, et al., “Cognitive Issues in Bible Translation: The Biblical Text in the Context of Human Experience”, *The Bible Translator* 71:1 (2020), 38-56.

** 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고대 기독교와 유대교(Christianity and Judaism in Antiquity)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전주대학교 신약학 조교수. jcek@hotmail.com.

과들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런데 번역 수용자들의 정신-뇌 복합체는 번역자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번역자는 단지 원 본문을 새로운 정황 안에 소개할 수 있을 뿐이고, 그렇게 번역된 본문의 의미를 추론하는 독자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16 같은 성서 구절을 번역하기 위해 번역자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현대 언어들 가운데는 “하나님”, “사랑”, “세상”, “민다”, 또는 “영생”과 같은 성서 그리스어 단어들에 상응하는 단어들을 가지지 않은 언어들도 종종 있다. 그런 언어들에서 동등한 개념들을 찾아내는 작업은 예수께서 니고데모로 하여금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더 복잡하게 한다. 현지 언어에 존재하는 그러한 어휘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고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에 대한 연구, 그리고 그러한 개념들이 유통되었던 고대 사회의 정황을 연구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 새로운 사회 종교적 환경에 대한 인지적 연구 또한 필요하다.

우리가 번역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들 자체가 번역에 대한 우리의 이론적 접근 방식을 시사한다. 역사적으로 ‘세계관’, ‘역동적 등가’, 그리고 ‘의미’ 등의 용어들은 ‘하나의 정황에서 다른 정황으로’ 개념이 옮겨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번역자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얀 드 바르(Jan de Waard)와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의 책 제목을 풀어 쓰자면, “언어학 과 문화적 차이의 장막을 걷어서 사람들이 원 메시지의 적실성을 명확히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¹⁾ 나이다는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의 최종 결과물을 상정한 다음 그것을 통해 “원천 언어 수용자들과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수용 언어 수용자들이 성서 메시지에 반응하기”를 기대했다.²⁾ 지난 반세기 동안 나이다의 학문적 영향은 현대 번역 원칙의 시금석이 되어 왔다.³⁾

최근 번역의 동향은 간 언어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복합적인 사회 종교적 행위 아래에 자리 잡은 정신적 과정들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번역자는 인지적 과정을 염두에 두고서 청중으로 하여금 원 저자의 의도에 상응하는 추론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⁴⁾ 인지적 접근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1) J. de Waard and E. A. Nid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Nashville: Thomas Nelson, 1986), 14.

2) E. A. Nida and C.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2nd ed. (Leiden: Brill, 1982; original edition, 1969), 24.

3) E. A. Nid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 (Leiden: Brill, 1964).

4) 이 논문에서 우리는 상관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개념적 기초로 삼아 의사소통 너머의 인간 경험 전체에 관한 통찰을 시도할 것이다. 우리가 다루는 이슈들에 반영되었지만, 번역 성서의 수용자들은 번역 내용의 도움을 받아 추론을 한다. 우리는 크리스티안 노르드(Christiane Nord), 코부스 마라이스(Kobus Marais)와 라이네 메일레어츠(Reine Meylaerts),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우리 분야를 융합적 사고의 방향으로 옮겨 이동시킨 점을 칭송한다.

최종 결과물보다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과정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이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제기하는 이슈들은 번역 작업을 설명하는 인지 모델들을 살펴보고도 하기 위함이다. 그 인지 모델들은 역으로 그 번역 성서를 받는 사람들의 기대(expectations)를 설명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먼저 도식 이론을 소개하고 그것을 우리의 논지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개념 틀로 삼고자 한다. 단선적이고, 환원주의적인, ‘단순한’ 모델들 대신, 우리는 마라이스(Kobus Marais)와 메일레어츠(Reine Meylaerts)⁵⁾가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제시한 ‘복합적인’ 네트워크 모델들을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우리는 요한복음 3:16에 관련된 인지적 공백들을 메우는데 필요한 연구의 가치를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의 목적은 인지적 접근들을 활용해서 번역자가 성서 본문의 총체성을 인식하고, 전혀 다른 인지적 환경에 놓인 인간 경험의 정황 안에서 성서 본문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2. 도식 이론(Schema Theory)

스트라우스(Claudia Strauss)와 퀸(Naomi Quinn)은 그들의 고전적인 연구에서 도식(schema)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도식은 “우리 지식 중 연관된 부분들을 조직화하는, 학습된 혹은 타고난 정신 구조들”로 이루어진다.⁶⁾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도식 이론은 사람들이 물리적, 사회적 환경 안에서 겪은 경험에 기반을 둔 관념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서술한다.⁷⁾ 사람들이 관찰한 사물들 혹은 사건들에 대한 추론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그들의 인지적 정황 안에서 어떻게 도식을 사용해서 소통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적합성 이론⁸⁾이라면, 포코니어(Gilles Fauconnier)와 터너(Mark Turner)

하지만 이 논문에서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번역된 성서 본문의 내용을 그들의 언어와 문화의 안에서의 삶에 연계시키도록 돕는 것이다. C. Nord,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2nd ed. (Abingdon: Routledge, 2018; original edition, St. Jerome Press, 1997); K. Marais and M. Reine, eds., *Complexity Thinking in Translation Studies: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bingdon: Routledge, 2019).

5) K. Marais and M. Reine, eds., *Complexity Thinking in Translation Studies: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6) C. Strauss and N. Quinn, *A Cognitive Theory of Cultural Mea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49.

7) R. D'Andrade,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8) D. Sperber and D. Wilson,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reprinted, 1995).

는 경험과 사상의 혼합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도식들이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⁹⁾ 이 점을 지지하기 위해 마라이스¹⁰⁾는 추론 형성 과정에 사회적 경험과 기호학의 관계에 주목한다: “뇌로부터 정신이 생성된다는 사실로부터 물질적 현상이 기호학을 만들어 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역으로 기호학은 정신을 통해 인과적 힘을 현실에 미침으로써 현실을 바꾸고 새로운 형태의 현실을 만들어 낸다.”¹¹⁾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경험의 총화에 대한 성찰을 통해 도식을 형성한다.¹²⁾

보다 최근에 대니 델로우치(Daniel A. DeLoach)는 ‘말-도식’(사람들이 성서 본문을 경험하는 방식)과 ‘행동-도식’(사람들이 성서 본문을 일상생활에 연결하는 방식)을 구별했다. 전자가 당위적인 번역 방법에서 나온 것이라면 후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본문을 생활 경험에 연결시킬 수 있게 한다. 말-도식과 행동-도식을 합침으로써 각 도식이 단독으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하나의 새로운 혼합적 관점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러한 혼합은 사람들의 본문 이해에서 나온 지식과 경험을 확장시킨다.¹³⁾ 도식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다양한 민족들이 그들의 생활 경험을 사용해서 대비되는 관점들을 정립할 수 있고 관찰된 동일한 사실로부터 대안적인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¹⁴⁾

예를 들어 북미주의 번역자는 일상 언어로의 번역을 그의 기독교적 섬김이라고 여기고, 그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성서 언어와 지역 언어 둘 다 존중하면서 정확한 번역을 위해 본문 석의와 해석학을 필수적 요소로 사용할

9) G. Fauconnier and M. Turner, *The Way We Think: Conceptual Blending and the Mind's Hidden Complexities* (New York: Basic Books, 2002).

10) K. Marais, *Translation Theory and Development Studies: A Complexity Theory Approach* (Abingdon: Routledge, 2014), 67.

11) Ibid.

12) A. C. R. West, “Response to Death: The Powerful Influence of Assumptions, Relationships and Ritual on the Balangao Christians in the Philippines”, Ph.D. Dissertation (Fuller Graduat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2007), 33-34.

13) D. A. DeLoach, “Knowing God in Melanesia: Schemas Relevant to Vernacular Scripture Engagement”, Ph.D. Dissertation (Fuller Graduat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2016), 220.

14)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원문, 번역자, 그리고 수용자 등 상호 작용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도식들이 주어진 본문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정 본문에 담긴 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의 총합을 반영하는 다양한 통찰들이 그러한 여러 도식들로부터 생겨난다. 정확히 말해서 그것은 본문의 메시지를 바꾸지는 않지만, 본문의 해석 과정은 문화적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문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반응에 있어서 해석학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R. D. Shaw and C. E. Van Engen, *Communicating God's Word in a Complex World: God's Truth or Hocus Pocus?*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2003), 174.

것이다. 멜라네시아 시골에 있는 사람은 번역된 본문이 그 방언을 사용하는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그 번역의 가치를 판단할 것이다.¹⁵⁾ 이처럼 두 도식이 두 개의 다른 정황을 묘사하긴 하지만, 둘 중 어느 것도 원본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번역을 현대 인간 경험에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도식의 기능을 좀 더 탐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하나의 인식 정황 내에서 인간 경험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인식 정황은 그들의 특수한 문화 내에서뿐 아니라 인간 경험에 부합하는 이상을 설정해 주는 여러 문화 유형들에 걸쳐서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3. 더글라스의 네 문화 도식(four cultural schemas)

메리 더글라스(Mary Douglas)는 네 개의 원초적 문화 도식들을 사용해서 “문화 분석”을 위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이 용어를 그녀가 사용한 것은 아니다). 세계 여러 곳의 문화를 연구하면서 더글라스는 모든 문화가 두 차원에 기초해서 서술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하나는 어떻게 한 사회의 구조적 요소들에 의해서(격자[Grid] 혹은 구조[Structure]) 사람들이 구분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사회적 경계들이(집단[Group] 혹은 공동체[Community]) 정체성을 설정하는가이다. 이 두 차원은 인간 상호 작용에 있어서 네 개의 대비되는 문화적 성격을 설명하는 틀을 제공한다.¹⁶⁾ 그녀는 이 고도로 일반화된 모델을 사용해서 문화적 경향들(cultural bias)이 어떻게 사람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했다.

마이클 톰슨(Michael Thompson), 리처드 엘리스(Richard Ellis), 그리고 아론 윌다브스키(Aaron Wildavsky)는 더글라스의 개념을 사용해서 하나의 문화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그 이론에 의해 “사회적 관계들에 내재되어 있고 또한 그것들을 정당화하는” 인지적 과정이 규명된다.¹⁷⁾ 그 결과로 드러난 문화적 경향들은 역으로 사회적 관계의 도식들을 만들어 내는데, 그 도식들이야말로 “사람들이 세계에 대해서 품고 있는 암묵적인 이론들로서, 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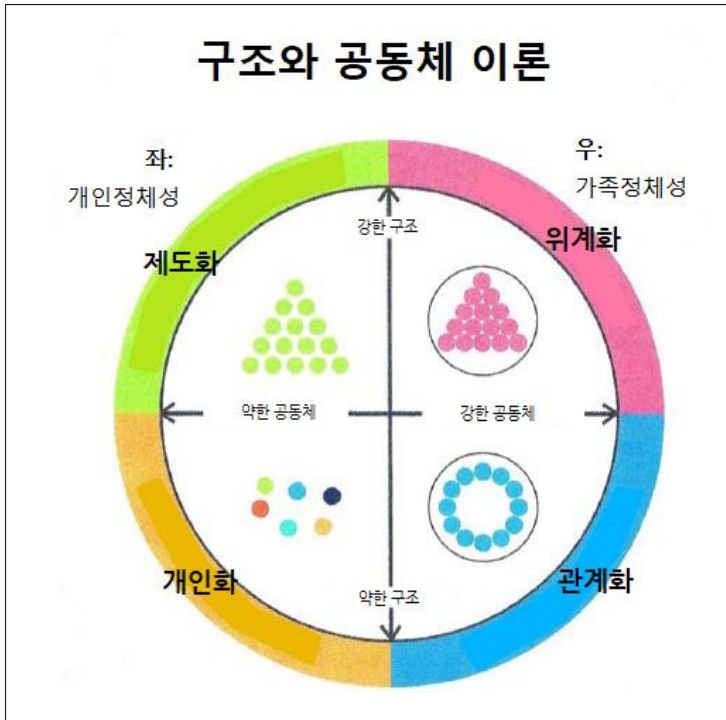
15) D. A. DeLoach, “Knowing God in Melanesia”, 14-15.

16) M. Douglas, “Cultural Bias”, Mary Douglas, ed., *In the Active Voi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2), 201-203.

17) M. Thompson, R. Ellis, and A. Wildavsky, *Cultural Theory* (Boulder: Westview Press, 1990), 58.

론에 의거해서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고 ... 옛 지식으로써 새로운 사건들을 해석한다".¹⁸⁾ 쉐릴 실저(Sheryl Silzer)는 그녀의 다언어/다문화 워크숍에 활용하기 위해 이 이론에 제시된 네 도식들을 <그림 1>과 같은 사분면 표로 만들었다.

<그림 1> 네 문화 도식¹⁹⁾



일반적으로 소비 시장 경제 사회에서 개인들은 집단의 부정적 영향들로부터 보호받는데, 그때 약-공동체 도식들(weak-community schemas)이 형성된다.²⁰⁾ 사분면의 왼쪽 두 유형은 사회적 책임에 비해 개인의 선택을 북돋

18) Ibid.

19) S. Silzer, *Biblical Multicultural Teams: Applying Biblical Truth to Cultural Differences* (Pasadena: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2011), 33으로부터 변용함. 실저는 세계 여러 곳에서 실시한 다문화 워크숍에서 이 사분면 표의 핵심을 나타내기 위해 이 용어들과 그림들을 활용했다. 실저의 용어들이 톰슨, 엘리스, 윌다브스키(M. Thompson, R. Ellis, and A. Wildavsky, *Cultural Theory*), 그리고 후에 링겐펠터(S. Lingenfelter, *Agents of Transformation* [Grand Rapids: Baker, 1996])가 사용한 더글라스의 사회학적 용어보다 사람들에게 더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 M. Douglas, *Risk and Blame: Essays in Cultural Theory* (London: Routledge, 1992), 132.

우는 체제를 나타낸다.²¹⁾

홉스테드(Geerdt Hofstede)가 설명하듯이 ‘개인화’적(individuating) 문화 도식의 특징은 독자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이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개인화하는 두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유사성은 개별성과 충돌하기 때문이다.²²⁾

반면 ‘제도화’하는(institutionalizing) 사람들은 뭘 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과 상세한 지침을 더 좋아한다. 제도화 도식 내의 사람들은 범주들, 그리고 거기 붙은 명칭으로부터 사회적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얻는다.²³⁾

한편, 강-공동체 도식들(strong-community schemas)은 가족이 자원을 공유하고 상호 관계를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사회에서 발견된다. 이 두 유형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이 우선되며, 가족 안에서 개인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용한다.²⁴⁾ 이 도식들은 보다 통전적이어서 몸과 정신을 통합하고 집단들 간의 균등성을 꾀으로써 사람들을 위계적 관계로 편성한다.²⁵⁾ 우주와 자연은 인간 세계의 일부로 간주되고, 영적 권세들이 인간과 그들이 사는 세계 사이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위계화’(hierarching) 도식들이 반영하는 사회는 하나의 계층화된 일체로서, 최고위 계층 사람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고 대중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진다. 누구나 자신의 위치를 알고 주어진 역할에 상응하는 이상에 따라 살아가는데, 그 역할들은 종종 존대법 체계에 의해 언어적으로 규정된다. 집단 구성원들은 이 사회 구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적합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²⁶⁾

‘관계화’(interrelating) 도식은 집단의 의사 결정이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황에 형성된다. 여기서는 상호 작용에 새로운 성격이 나타나면 그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현실이 만들어진다.²⁷⁾ 모든 사람이 동등

21) M. Thompson, R. Ellis, and A. Wildavsky, *Cultural Theory*, 12.

22) G. Hofstede,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Cultures*, 2nd ed. (Thousand Oaks: Sage, 2001), 91; S. Silzer, *Biblical Multicultural Teams*, 29; 참조, B. C. Shin, and S. Takagi Silzer, *Tapistry of Grace: Untangling the Cultural Complexities in Asian American Life and Ministry* (Eugene: Wipf and Stock, 2016), 106-108.

23) S. Silzer, *Biblical Multicultural Teams*, 29.

24) M. Douglas, *Risk and Blame*, 133.

25) M. Thompson, R. Ellis, and A. Wildavsky, *Cultural Theory*, 12.

26) S. Silzer, *Biblical Multicultural Teams*, 30.

27) K. Marais, *Translation Theory and Development Studies*; Kobus Marais, *A (Bio)Semiotic*

하고 따라서 집단 전체의 이익에 모두가 기여하며 모든 유형의 자원을 공유한다. 각자 다른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원만이 아니라 집단의 이상을 공유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⁸⁾

이 네 도식들은 삶의 모든 측면 — 식사, 의사소통, 노동, 휴식, 청소, 그리고 우정과 지도력에 대한 이상 등 — 에 관한 일상적인 결정들에 의해서 유지, 강화된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인간 영성에도 영향을 미친다.²⁹⁾ 각 도식이 다른 세 도식들과 연계되어 이해될 때, 하나의 문화 복합 현상이 생겨나며, 그것은 새뮤얼 로(Samuel Law)³⁰⁾가 지적하듯이, 복합적인 체계들의 ‘미로’(mazeway) 안에서 연구되어야 한다.³¹⁾ 에이미 웨스트(Amy West)가 아래 제6장에서 제시한 말레이시아 사바(Sabah, Malaysia)의 예에서 보듯이 번역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경향이 무엇이건 간에, 각 문화 도식을 섭렵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인지적 변화를 실현하는 데 어떤 조정이 필요할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인지적 변화는 원 저자들이 전제한 이상과 번역 성서 독자들이 전제하고 있는 이상을 호응시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약-공동체 경향(개인화와 제도화 성향)을 지닌 번역자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현지인들이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서로 연결된 것으로 인식하는 정황이다. 문화 도식 이론의 도움을 통해서 강-공동체 부족들이 새로운 정체성의 수용을 힘들어할 때, 약-공동체 사회 출신의 번역자는 그들의 문화적 이상에 맞도록 신앙을 혼합할 수 있는 대안적 표현들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래 제5장에 케냐의 사례를 통해 존 루치비아(John Luchivia)가 설명할 것이다.

더욱이 약-공동체 번역자들은 논리적 설명에 의존하기보다는 번역이 어떻게 사람들의 대인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강-공동체 유형의 사회에 속해 있던 성서의 원 독자들에게 성서의 메시지가

Theory of Translation: The Emergence of Social-Cultural Reality (Abingdon: Routledge, 2019).

28) S. Silzer, *Biblical Multicultural Teams*, 31.

29) S. Silzer, “Caring for the Person in an Organizational Setting: New Directions in SIL Training”, Ph.D. Dissertation (Fuller Graduat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2001); S. Silzer, *Biblical Multicultural Teams*, 81-137.

30) S. K. Law, *Revitalizing Missions on the Cusp of Change: Complex Systems Science Mazeways for Mission Theory amid Twenty-first Century Realities* (Lexington: Emeth Press, 2016).

31) 하나의 사회학 모델로서 더글라스의 격자와 집단은 인간 상호 작용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한다. 번역자들은 이것을 활용해서 그들 자신의 경향들을 인식하고 각종 경향들이 작용하는 정황에서 번역 작업을 할 때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능하면 현지 번역자들을 번역에 참여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생하게 전달되었다면, 번역을 통해 오늘날 강-공동체 도식을 지닌 사람들 역시 그들이 인식해 온 초자연적 실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웨스트가 제6장에서 밝힐 내용이다. 개인화 사회 출신 번역자들이 본문을 어떻게 주석하고 번역할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달리, 강-공동체 수용자들은 본문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살아 내지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집단… 그리고 격자… 이 두 요소의 조합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을 조직화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낸다”.³²⁾ 다음 장에서 조나단 그라임스(Jonathan Grimes)는 번역을 위한인지 원리로서 문화 도식들과 그 원리의 함의들을 이해함으로써 도식 이론을 마가렛 아처(Margaret Archer)의 성찰(reflexibility) 개념에 연결할 것이다.

4. 문화적 성찰(Cultural reflexivity)

한 히말라야 부족의 문화적 정체성 연구에서 조나단 그라임스는 마가렛 아처가 성찰(reflexibility) 개념과 작용성(agency) 이론의 이해를 통해 사람들이 도식들을 형성하고 변형하는 방식을 규명했음을 밝혔다.³³⁾ 이러한 개념들을 활용해서 그라임스는 한 티베트 사회에서 의례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 of rituals)를 설명한다. 도식 이론의 출발점은 문화 경험으로부터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는 데 있다.³⁴⁾ 반면 아처는 문화의 두 층위, 즉 문화 체계(cultural systems)의 층위와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층위간 상호 작용으로서 문화적 변화를 이해한다. 문화 체계 층위는 사회 내에서 발견되는 논리 체계를 말하고, 사회문화적 층위는 공동체의 전제들 내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 즉 그들의 도식들을 다룬다.³⁵⁾ 이 두 층위의 관계는 논리적이고 인과적으로 묘사될 수 있고, 그것은 개인들과 그들이 속한 집단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반영한다.

논리적 관계와 인과적 관계의 이 상호 작용이 의도적인 문화 변화의 힘

32) M. Thompson, R. Ellis, and A. Wildavsky, *Cultural Theory*, 97.

33) M. S. Archer, *Culture and Agency: The Place of Culture in Soci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106.

34) B. Shore, *Culture in Mind: Cognition, Culture, and the Problem of Mean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44, 45; R. D'Andrade,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Anthropology*, 122; C. Strauss and N. Quinn, *A Cognitive Theory of Cultural Meaning*, 6.

35) M. S. Archer, *Culture and Agency*, 104.

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작용성(agency)은 하나의 ‘속성’(property)으로서, 그 속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지 모델들을 변형시킬 수 있게 하고 특정 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³⁶⁾ 아처에 따르면 성찰(그녀는 그것을 ‘내적 대화’[internal conversation]라고 부른다)은 논리적 관계와 인과적 관계를 연결한다. 개인적 성찰은 사람들이 정황 안에서 자신들, 즉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경향들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소통적 성찰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 상호 작용을 통해 공개적으로 수행된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고 공유하는 동안 소통적 성찰을 통해 그들의 내적 대화를 형상화한다.³⁷⁾

아처의 경우 서구적 관점의 사회학에 기반을 두어서 개인적 성찰에 관한 자료 수집이 용이했지만, 히말라야 부족들은 집단주의적, 위계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라임스는 공동체 수준에서 성찰의 과정을 보여 주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³⁸⁾ 한 히말라야 공동체가 과거 전통으로부터 의례들을 재활성화하는 과정은 창의적이었다. 그것을 관찰하면서 그라임스는 공동체가 공유 경험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낼 때 공동체 수준의 작용성이 의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공유된 경험의 특성들, 그리고 다시 고안된 고대 의례들은 현대 정황에 적합하도록 조정되었다. 이 조정의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작용성이 하나의 인지적 접근에 통합되는지, 그리고 역으로 그 인지적 접근이 공동체 내의 특정한 경험 구조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재활성화된 의례에 따라오는 도식에 근거해서 그라임스는 의례가 공동체에 대한 사람들의 공유된 헌신을 문화적으로 재활성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³⁹⁾ 이것은 언어 이전 기호적(prelinguistic semiotic) 상호 작용을 의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가능했다.⁴⁰⁾ 공동체에 대한 공유된 헌신은 인간이 경험의 공유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 내는 하나의 층위를 나타낸다. 그것은 개별 행위자들이 그러한 헌신을 가지고 의례에 참여하는 층위로 전이될 수 있다.

36) L. M. Ahearn, “Language and Agenc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0 (2001), 130. 여기서 작용성(agency)은 특정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필요한 의도적 행동이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문화적 정체성의 공유된 의미들 이면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다. J. D. Grimes, “Incorporating Agency into a Cognitive Theory of Cultural Identity: Lessons from the Himalaya”, Ph.D. Dissertation (Fuller Graduat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2018), 310.

37) M. S. Archer, *Structure, Agency and the Internal Convers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302.

38) J. D. Grimes, “Incorporating Agency into a Cognitive Theory of Cultural Identity”, 139-143.

39) Ibid., 148-154.

40) K. Marais, *A (Bio)Semiotic Theory of Translation*, 67.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에서 성찰의 인지적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성서 번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문 분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일단 새로운 번역이 소개된 후 성찰 과정들을 관찰함으로써 얼마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일어났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만일 번역이 그 사회에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번역으로 인식될 것이다. 만약 번역이 참으로 보다 관계적 현상으로서 “다문화 상황에서 인간 상호 작용을 중재한다”면,⁴¹⁾ 최종 번역물만이 아니라 번역 과정 전체가 한 공동체를 외부 침입에 대한 대응적 작용성(reactive agency)으로부터 일종의 창조적 작용성(creative agency)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히말라야 부족은 불교적 종교 체계로부터 변화를 촉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것은 진행 중인 의례의 재활성화에 부합하는 공유된 인지적 정체성에 따라 그들이 살아가고 예배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⁴²⁾ 만약 성서 본문이 밖에서 주어진 강제적 기호 체계로 인식된다면,⁴³⁾ 그들의 대응 태도는 거부를 향한 사회 종교적 이상을 촉발시킬 것이다. 반면, 만약 사람들이 번역을 하나의 새로운 현상으로 경험하고 자신들의 것으로 간주한다면, 자신들의 고유한 인지 체계를 통해 그것을 해석할 것이다. 즉, 창조적 태도가 자극을 받아 그들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의례와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다.⁴⁴⁾ 그리고 내재하는 사회적, 종교적 도식들이 향상되면서 번역뿐 아니라 번역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까지도 존중과 환영을 받게 된다.

5. 다문화 정황에서 ‘심정 언어’(heart language)라는 신화

아프리카 도시 지역에서 삶의 다양한 상황에 어느 언어를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할 때 다중 언어 사용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른바 ‘심정 언어’ 혹은 고향 언어를 규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전형적인 케냐인은 최소 세 언어에 능통하고 정황과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그것들을 바꾸어 사용한다. 아프리카 도시 지역에서는 생존을 위한 언어적 선택의 순간들을 중심으로 인생이 돌아간다. 언어 사용의 역학은 무엇인가? 그 역학이 개인적으로는

41) K. Marais, *Translation Theory and Development Studies*, 62.

42) J. D. Grimes, “Incorporating Agency into a Cognitive Theory of Cultural Identity”, 145.

43) K. Marais, *Translation Theory and Development Studies*, 8-9.

44) 이것은 더글라스의 모델에 대한 흥미로운 시험이 될 것이다. 티베트인들은 외부의 행위와 본문의 경향을 의도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들의 상호 관계적 도식을 풍성하게 함으로써 그들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공유된 추론들을 의식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시도한다.

다중 언어적 예배 상황에서, 그리고 공적으로는 사회생활 전반에서 번역된 성서를 사용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다중 언어 환경에서 자라면서 사회 종교적인 다양한 유형의 의사소통에 여러 언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 누군가 당신에게 ‘심정 언어’가 성서 읽기와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어떤 언어로 성서를 읽어야 하는가? 루치비아가 학교 다니던 1970년대 학교 내에서는 토착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우리가 매일 논리적 사고를 연습한 언어는 영어와 키스와힐리(Kiswahili)어였습니다. 토착어는 사소한 일들에, 그리고 마을에서 아이들과 놀이할 때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교회에서 찬송하고 광고할 때 토착어로 한 이유는 그것들이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설교는 키스와힐리어로 말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듣는 것은 생사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뒤집어서 나의 ‘심정 언어’로 성서를 읽으라는 것은 어려운 뿐만 아니라 의미 없는 일입니다(루치비아가 2017년 9월 보낸 개인 이메일).

언어는 생각을 담고 정보를 전달하는 단순한 실용적 수단 이상이다.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해서 일차적으로 세계를 인지 도식 안에 창조적으로 조직하고 각자의 사회 언어적 정황 안에서 자기 자신들을 적절하게 표현한다. 그라임스가 발견했듯이 언어는 정체성 표지임과 동시에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한다. 그래서 최대의 성찰 효과를 내는 하나의 ‘심정 언어’를 구분해 내는 것,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는 다른 언어들이 행동, 결심, 혹은 정체성 변화를 덜 일으킬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⁴⁵⁾

언어 사용에 관한 인지 도식은 하나의 언어 복합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작동한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유형은 저장된 정보의 언어적 범주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세베이어(Sabaot language) 프로젝트 운영자와의 최근 대화에서 제기되었다: “내가 세베이족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⁴⁶⁾ 나와 같은 정황에 있는 사람들만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2019년 9월

45) J. O. Luchivia, “Contextualised Language Choice in the Church in Kenya”, Ph.D. Dissertation (Fuller Graduat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2013), 25.

46) 서부 케냐의 세베이어는 나일어족의 한 언어이다. 반투어를 사용하는 부쿠수족은 세베이족을 감싸고 있고 그들 모두는 국가 언어들인 영어와 키스와힐리어를 구사한다. 세베이인 중 부쿠스인과 대화할 때 부쿠스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다른 세베이인만이 그 개념적 함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2일 개인적 대화). 따라서 “다중 언어 구사자가 한 언어를 골라 쓰는 이유는 한 집단과 동일시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집단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이다”.⁴⁷⁾ 더 나아가 다중 언어 환경은 리더십 문제들, 조직 구조, 삶의 모든 사안을 다루는 능숙함,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관련된 선호 사항들에 영향을 미친다.⁴⁸⁾ 케냐 지도자들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맞는 언어를 골라서 사용하곤 한다. 특정 공동체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는 토착어로 말하지만, 일반 다중 언어 청중을 상대로 단결과 국가적 가치를 역설할 때는 국가 언어들(national languages)을 사용한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존하려면 한 다원주의 사회의 모든 층위와 연결되어야 하고, 그 복잡성을 가늠해 나가는 동안 적합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다중 언어 사용은 하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진화하고 있다.⁴⁹⁾

요약하면, 루치비아는 그라임스와 같은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언어가 정체성과 문화를 형성하는 데 토대적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성서 번역에 종사하는 이들은 핵심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최종 번역물뿐 아니라, 비록 희미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관련된 소수 언어 자원을 개발하는 일이 그것이다.⁵⁰⁾ 다중 언어 구사자들에게 언어 선택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들의 능력에 기초한다. 화자와 청자가 모두 그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심지어 하나의 문장 내에서도 여러 언어가 쓰일 수 있다.⁵¹⁾ ‘심정’이건 아니건, 모든 상황에 맞는 하나의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중 언어가 사용되는 세계화된 동아프리카의 도시 지역에서 번역자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포함한 일상 대화에 필수적인 다양한 언어들로부터 최대한의 유익을 얻고 있는지를 고려해야만 한다.⁵²⁾

6. 사회 종교적 적실성(Socioreligious Relevance)

에이미 웨스트는 세계 여러 곳에서 연 워크숍에서 이러한 문화적, 언어적 문제들을 사람들의 영적 관심사에 적용해 왔다. 성서 속 민족들과 오늘

47) J. O. Luchivia, “Contextualised Language Choice in the Church in Kenya”, 33.

48) J. Edwards, *Multilingualism* (London: Penguin Books, 1994), 208.

49) J. O. Luchivia, “Contextualised Language Choice in the Church in Kenya”, 28.

50) A. Corsellis, *Public Service Interpreting: The First Step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8), 101.

51) D. Sperber and D. Wilson,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125.

52) J. O. Luchivia, “Contextualised Language Choice in the Church in Kenya”, 143.

날 민족들의 도식들은 매우 다르지만, 사실 사람들이 성서의 정보를 그들의 현 상황 속에서 소화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것은 오늘날의 문화 도식들이다. 성서와 문화의 연계는 성서 본문을 특정 상황에 적용해야 할 정당성을 제공한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서의 가르침에 비추어 그들의 사회 종교적 이상이 작동하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한다. 어떻게 한 부족의 종교적 도식이 그들이 성서 본문을 받아들여 응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사람들이 성서를 그들의 상황과 연계시키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외부인들이 좋게 보아 혼합주의적이고 나쁘게 보면 이교적이라고 여기는 그들의 의례들과 다른 문화적 표현들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게 된다.⁵³⁾

사바(말레이시아)의 카다자족(the Kadazan)은 재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서 ‘할아버지 산’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키나발루(Kinabalu) 산이 모든 망자들의 혼이 머무는 마지막 안식처라고 믿는다. 재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경건한 이들은 할아버지 산에게 정기적으로 희생 제사를 드린다. 키나발루 산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은 최근의 한 사건을 이야기한다. 제멋대로 굴고 배려심이 없는 관광객들이 산에 올라가 환락 행위를 벌였고 벌거벗은 채로 그들의 탈선 행위를 촬영해서 사회관계망에 공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지진이 사바 지역을 강타했다. 그리고 그것이 토사 홍수를 일으켜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⁵⁴⁾

카다자족 신자들은 그 두 자연재해가 할아버지 산의 노여움 때문에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의례 전문가가 높은 하늘에 올라가 할아버지 산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었고 카라바오(물소) 일곱⁵⁵⁾ 마리와 닭 한 마리로 희생 제사를 바치라는 말을 들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할아버지 산의 노여움이 풀리지 않을 것이고 재난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 의례는 전국의 언론이 방송하는 가운데 시행되었다.⁵⁶⁾

“문화가 성서를 만나다” 워크숍에서 웨스트는 암 도표를(그림 2) 사용해서 사람들이 그들 안에 깊이 뿌리내린 도식들을 발견하도록 도왔다. 암 잎들

53) R. D. Shaw, “Beyond Syncretism: A Dynamic Approach to Hybridity”,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42:1 (201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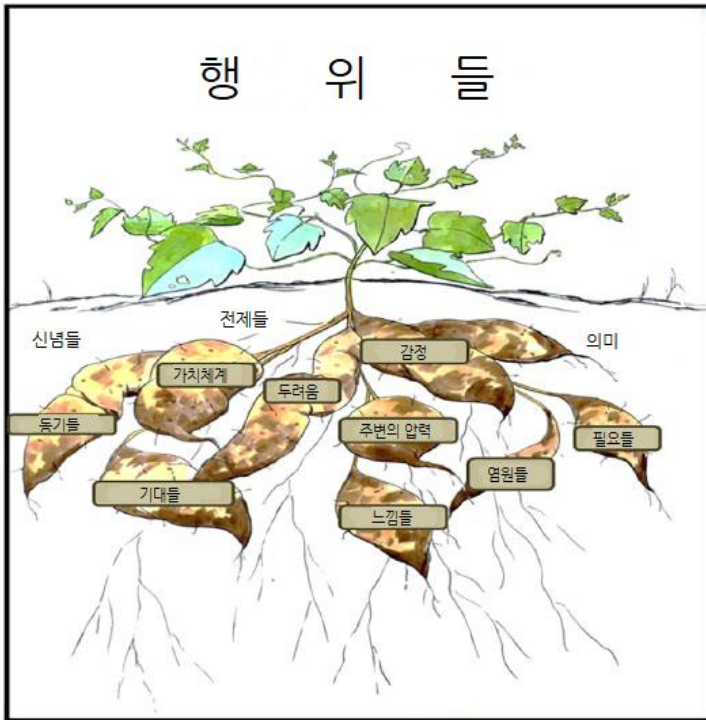
54) P. W. Report, “Naked Tourists Blamed for Deadly Malaysian Earthquake.”, *New York Post*, <https://nypost.com/2015/06/08/naked-tourists-blamedfor-deadly-malaysian-earthquake/>.

55) 카다자족은 일곱을 완전수라고 믿는다.

56) IANS, “Ritual Conducted on Malaysian Mountain to Appease Spirits,” Updated June 20, 2015, https://zeenews.india.com/news/world/ritual-conductedon-malaysian-mountain-to-appease-spirits_1616784.html. 2016년 4월 사바의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린 ‘문화가 성서를 만나다’ 수업에서 학생들의 응답을 통해 공유됨.

은 가시적이고 묘사될 수 있는 행동들, 즉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나타낸다. 얇 줄기는 뿌리 깊은, 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행동의 동기들을 나타낸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관계의 압력, 바라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등이다. 행동의 뿌리까지 깊이 파고들면, 경험을 추동하는 힘의 실체들을 표면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일단 그것들을 언어로 표현할 때 그들은 성찰을 통해 행위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전제와 가치관, 그리고 압력이 행동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면, 그들은 번역된 성서로부터 배운 것을 그러한 인식과 연계시킨다.⁵⁷⁾

<그림 2> 얇 도표: 신념과 가치 체계에 의해서 추동되는 행위들



워크숍에 참석했던 카다자 기독교인들은 성서를 할아버지 산을 달래야 하는 필요에 적용하고자 했다. 두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그들은 시편 46:1[1-2]을 인용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시편 146:5는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

57) A. C. R. West, “Equipping for Decision-Making when Culture Clashes with Scripture” (Texas: Paper presented at Bible Translation at Dallas, 2013. 10. 15), 2-4.

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아버지 산에게 제사드리는 일에 관해서는, (예수를 영원한 희생제사로 서술하는)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읽고 나서 더 이상 제사를 바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기독교 선교 역사가 백 년이 넘었지만, 사바 지역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오래전에 해결했다고 여겼다. 따라서 현재의 모든 행동을 ‘기독교적’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암들을 파낼 기회, 즉 그들의 도식을 성서 본문에 비추어 평가할 기회를 그들은 갖지 못했다. 신과 영적 존재들에 관한 뿌리 깊은 관념들이 문제시된 적은 거의 없었다. 일단 이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자, 성서를 새롭게 음미함으로써 교회 내에 성찰적 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적으로 영향력 있는 방식들이 생겨났다.⁵⁸⁾

7. 토착어의 성서 본문 관여 모델(A model for vernacular engagement with the biblical text)

번역 성서가 공동체들의 삶의 방식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공동체들이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 결국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 단지 외부인들이 제시한 것의 수용, 혹은 현지 인지 구조에 기반을 둔 토착어로 된 경험이 곧 성서 본문에 대한 존중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혼합을 통해 성서 본문을 받는 사람들의 정황 안에서 성서 내용에 대한 하나의 새롭고 적실한 이해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딜로우치는 포코니어와 터너의 인식 혼합 (conceptual blending)이라는 개념⁵⁹⁾을 활용해서 토착어의 성서 본문 관여 모델을 개발했다.⁶⁰⁾ 이 모델에 의하면 공동체는 (성서 본문을 소화하는) 말-도식과 (성서 본문을 삶과 연결시키는) 행동-도식을 결합한다. 이 둘은 하나의 혼종 인식(a hybrid concept)을 만들어 낸다. 그 인식은 성서 본문이 생생한 경험의 특수성 안에서 소통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다. 즉, 수용자들은 성서 본문의 의도된 메시지라고 그들이 인식한 바를 살아 내게 되는 것이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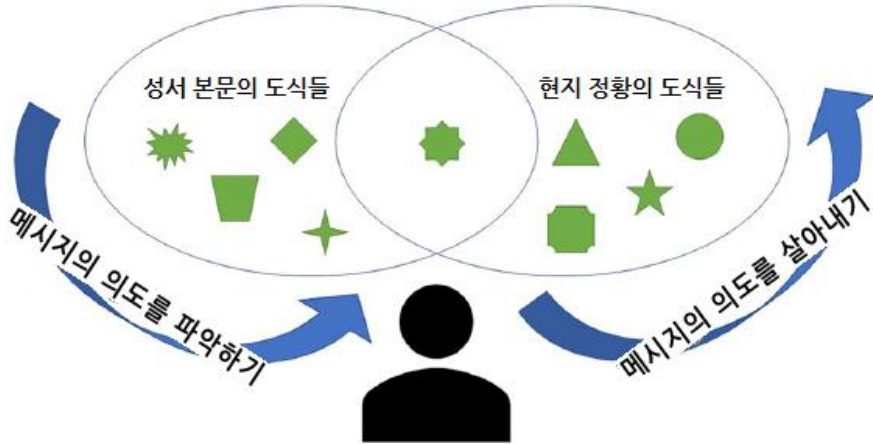
58) A. C. R. West, and J. Shetler, “Culture Meets Scripture Report” (Kota Kinabalu: Sabah Theological Seminary, 2016).

59) G. Fauconnier and M. Turner, *The Way We Think*.

60) D. A. DeLoach, “Knowing God in Melanesia”, 222-231.

<그림 3> 토착어의 성서 본문 관여 모델⁶¹⁾

개념 혼합 이론에 비추어본 토착어의 성서본문 관여



성서 번역은 메시지에 담긴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거룩한 본문을 통한 의사소통으로서, 웨스트가 밝혔듯이, 하나의 인지적 과정을 촉발하고 그 인지적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성서 본문을 삶에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한다. 그 욕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는 하나의 성서 본문의 메시지를 분별해 낸 다음, 그 지식을 그 공동체의 특수성 안에서 일어나는 의미 구현 활동에 적용시킨다. 그러한 성찰 활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또 그라임스가 히말라야 민족들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강조했듯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적합한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과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람들이 성서 본문을 그들의 정황 안에서 존중한다; (2) 한 본문이 인간 삶의 정황에서 지니는 가치를 인정하는 현지 표현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3) 쇼가 언급한 것처럼,⁶²⁾ 그들은 상호 배움을 경험한다.

결국,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 적실하다고 인식한 것에 비추어서만 번역된 성서를 받아들일 수 있다. 크리스티안 노드(Christiane Nord)는 “번역을 둘러싼 상호 작용”⁶³⁾의 한 부분으로서 도식들 간의 충돌

61) Ibid., 245로부터 변용.

62) R. D. Shaw, “Beyond Contextualization: Toward a Twenty-first-century Model for Enabling Miss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34:4 (2010), 211.

63) C. Nord,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16-18.

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번역자들은 더글라스의 문화 유형들의 적실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번역을 “원 본문을 기반으로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의도적이고, 언어가 개입된 간-문화적 상호 작용”⁶⁴⁾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서 본문의 대립하는 관점들에 편승하고, 개인화하는 인지 환경과 집단주의적 인지 환경 간의 충돌이 강화될 때 나타나는 것이 히버트(Paul G. Hiebert), 쇼(R. Daniel Shaw), 그리고 티에누(Tite Tiéno)가 “분리된-충위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이다.⁶⁵⁾ 어느 지역에서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도식에 비추어 성서 본문을 묵상할 때, 즉 본문에 기반을 두어서 새로운 추론을 만들어 낼 때, 다른 정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확장된 인식들로부터 유익을 얻는다. 같은 본문에서 각자 다른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다. 그것들이 다 모이면 하나의 거대한 이해의 집합체가 생겨나고, 그것이 특정한 하나를 넘어서게 해 주는 해석학적 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⁶⁶⁾

8. 인지적 성찰(cognitive reflexivity)을 위한 번역

이제 이런 인지적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서론에서 제기한 요한복음 3:16의 인지적 공백을 메울 방법을 찾아보자. 이 문제에 대해서 쇼가 파푸아 뉴기니 서부 지방 늪지대의 집단주의적, 관계적인 사모아인들과 교류하면서 얻은 해답은 인류학적, 언어학적, 그리고 주석적 연구였다. 그 연구는 성서 원 본문과 사모아인들의 이상, 그 둘을 모두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였다. 그 둘이 합해져서 번역 정확이 만들어지는데, 그 정황은 한편으로 공통된 인간성을 표출하는 유사성들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지적 차이를 규명할 수 있게 한다.⁶⁷⁾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를 정립하기 위해서 사모아인들의 친족 관계와 사회 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각 장옥(長屋; longhouse)에는 “어르신” 한 명씩이 있어서 집안일을 두루 감독했다. 이것이 ‘아요’이다. 그

64) H. Vermeer, “Skopos and Commission in Translational Action”, A. Chesterman, ed., *Readings in Translation* (Helsinki: Oy Finn Lectura, 1989), 173.

65) P. G. Hiebert, R. D. Shaw, and T. Tiéno, *Understanding Folk Religion: A Christian Response to Popular Beliefs and Practices* (Grand Rapids: Baker, 1999), 15.

66) R. D. Shaw and C. E. V. Engen, *Communicating God's Word in a Complex World*, 73-75.

67) R. D. Shaw, “The Translation Context: Cultural Factors in Translation,” *Translation Review* 23 (1987), 25-29.

와 같은 한 존재가 한 집안만이 아니라 사회적 체계 전체(한 집안, 그 집안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친구들, 그리고 적들까지)를 관장하는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사모아인들 자신과 그들이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했다. 한 장옥의 어르신처럼 한 초인적 존재가 전체 사회 체계를 관장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사모아인들은 상호 적대감과 침략, 그에 대한 반격 등을 자제할 수 있었다. 모두가 한 큰 ‘아요’의 감독 아래 있는 같은 체계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요’를 그들이 사용했던 포용적인 소유 대명사 ‘오예’와 결합함으로써 사모아인들은 그들의 ‘아요’ 인식틀을 수정해야 했다; ‘오예 아요’는 “우리(모두)의 돌봄자”로서 그의 영역 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돌보는 분이다. 이처럼 친족 관계 용어에 대한 연구를 활용해서 그것을 보다 넓은 사회 구조, 즉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관계와 그 관계에 적합한 행동 유형들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지칭할 용어를 정립한 것이다.⁶⁸⁾

‘오예 아요’에 담긴 집단적 속성은 ‘메누굴로 오골라’, 즉 “조심스럽게 감독함”이라는 용어에 잘 드러난다. 그 용어가 곧 ‘사랑’의 번역어로서 모든 ‘모노호인디 요블리’, 즉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세상” 만민에게 미쳤다. 그러한 깨달음은 외부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모아인들의 인지적 틀을 바꾸었다. 식민지 정부의 관리들, 그리고 뒤이어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사모아인들 서로 간의 침략과 식인 관습을 비난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그것이 왜 비난받을 만한 것인지 말해 주지 않았다. 모든 인간과 밀접하게 교제하시는 분의 돌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관계의 틀이 확장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외부인들의 금령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잘 알려진 구절에 들어 있는 ‘믿는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감각 인식과 지식획득에 관한 사회 언어학적 연구를 요구한다.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것은 보여지는가, 만져지는가, 맛보아지는가, 들리는가, 아니면 냄새를 풍기는가? 세상을 경험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기존 지식을 점검하고 그것을 새로 입력된 내용에 적용한다. 위에서 언급한 아쳐의 ‘성찰’(reflexivity)이 바로 그것이다. 요한복음 3:16의 정황에서 사모아인들은 예수를 물리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다. 하지

68) R. D. Shaw, *From Longhouse to Village: Samo Social Change, Case Studies in Anthropology Series* (Fort Worth: Harcourt Brace, 1996), 55-67.

만 다른 성서 본문들과 함께 이 구절의 인지적 자극을 “들음”으로써 그들은 “이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믿었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생명이라는 관념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제 사모아인들의 우주관을 살펴볼 차례다.

사모아인들의 “영생” 관념은 선악 간의 우주적 대결과 관련이 있다. 선은 ‘코구아’ 즉 죽은 조상들의 혼령들에 의해 표현된다. 이 혼령들은 이생에서의 삶과 영적 존재 사이를 끊임없이 순환한다. 영적 존재들은 나무 꼭대기 너머 ‘쿠구아 문순’ 즉 조상들의 집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태어난다”라는 말은 ‘코구아 일라’ 즉, 문자적으로 “조상 한 명을 획득한다”를 뜻한다.⁶⁹⁾ 사모아인들이 요한복음 3:16의 영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삶, 죽음, 재생의 순환적 생명 개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개념을 발견해야 한다. 번역이 그들의 성찰 과정을 작동시켜서 ‘코구아’의 도식을 재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재생하는 혼령을 통한 “끝나지 않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활성화된 생명”으로 말이다.⁷⁰⁾

물론 요한복음 3:16은 그 한 구절만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보다 큰 본문과 함께 작동하고 있다. 니고데모와 예수의 야간 대화 전체의 문맥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니고데모는 조언을 구하고 있었고 그것을 그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 예수는 역사로부터 한 요점을 말씀하셨다. 자신을 구리뱀과 동일시하면서 예수는 니고데모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모세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자극했다. 하지만 그들이 공유했던 그러한 인지 환경을 사모아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의 역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태어남”을 이해할 수 없었듯이 사모아인들도 그러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의 인식들을 조정해 준 것처럼 윤희 혼령이라는 사모아인들의 도식도 조정될 필요가 있었다. 더 나아가 번역 과정에서 쇼의 도식도 조정되었다. 그가 사모아 우주관을 새롭게 음미하게 되면서 성

69) R. Daniel Shaw, “The Good, the Bad and the Human: Samo Spirit Cosmology” (Adelaide: Paper presented at the Australi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ns, 1981), 96-97. 사모아인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 조상이 신생아에게로 들어와서 생명을 준다고 믿는다. 그 순간 ‘코구아’가 ‘핀린’으로 바뀌는데, 그것은 조상들의 처소에서 한 인간에게로 거처가 옮겨졌음을 의미한다.

70) 이 언어유희가 영어로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사모아말로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활성화됨으로써 재생하는 ‘쿠구아’는 끝난다. 사모아말에서 존재 양식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바뀌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용어변화 역시 중요한 메시지를 나타낸다.

서 본문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9. 결론

우리가 고찰한 인지적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성서 번역자들은 문헌적, 인류학적, 그리고 영적 문제를 함께 고려하게 될 것이다. 번역 작업은 본문 분석, 번역 원칙들과 함께 인지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래야 번역 수용자들이 본문과 함께 그 본문의 정황을 음미하면서 자신들의 현지 도식(local schema)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¹⁾ 다른 말로 하면, 번역은 “다언어 정황에서 일어나는 인간 상호 작용을 중재”하는,⁷²⁾ 하나의 관계적 작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다언어적, 다문화적이고 지구화된, 그리고 융합된 인지 환경들의 복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이론의 뒷에 걸리지 말고 이론 너머 현실을 다루어야 한다. 현실에는 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원문을 번역으로써 개념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번역된 본문을 수용자들이 어떻게 소화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과거의 단선적 논리를 넘어 인식 도식들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복합체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사람과 번역은 상호 작용을 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의 총화를 가지고 번역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 자기 성찰적으로 반응하다가 이내 성서 본문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실체와 창조적으로 상호 작용하기에 이른다.

이 엄청난 과업에 참여하기 위해 성서 번역자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먼저 저자와 원 독자들의 정황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주석적, 해석학적, 인지적 함의들이 포함된 정황이다. 저자가 무엇을 의도했고, 그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원 독자들이 전제했던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동시에 번역자는 번역을 읽는 독자들의 정황, 즉 그들이 번역된 메시지를 자신들의 인지적, 사회 종교적 경험에 비추어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성서를 그들의 문화적, 언어적 공간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인지적 과정, 거기에 우리의 일차적 관심이 있다. 문화 유형의 영향, 그들이 본문을 인지적으로 묵상하는 방식, 그들의 언어적, 종교적 이상에 담긴 함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번역된 본문에 반응하

71) 적절하게 훈련된 현지인 번역자들은 그들의 도식들을 번역 과정에 활용한다. 우리가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들이 본문과 정황을 함께 음미한다면 그들과 그들이 만든 번역, 그리고 본문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유익을 얻을 것이다.

72) K. Marais, *Translation Theory and Development Studies*, 62.

는 방식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우리는 알고자 한다. 이러한 인지적 문제들에 관련된 성서 본문에 대한 연구는 다른 이들이 수행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번역 과정의 두 측면에 동등한 관심이 기울여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번역이 하나의 복합적인 인지적 미로라는 점이다. 그것은 인간 경험의 틀을 바꾸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 그 과정에서 한 공동체만의 하나의 새로운 인지 혼합이 나타나고, 그것이 인간 경험의 집합에 신선한 이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주제어>(Keywords)

인지 연구, 도식, 다언어사용, 성찰, 영성, 인지 환경.

cognitive studies, schema, multilingualism, reflexivity, spirituality, cognitive environment.

(투고 일자: 2021년 1월 19일, 심사 일자: 2021년 2월 19일, 게재 확정 일자: 2021년 4월 17일)

<참고문헌>(References)

- Ahearn, L. M., "Language and Agenc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0 (2001), 109-137.
- Archer, M. S., *Culture and Agency: The Place of Culture in Soci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Archer, M. S., *Structure, Agency and the Internal Convers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Corsellis, A., *Public Service Interpreting: The First Step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8.
- D'Andrade, R., *The Development of Cognitive Anthrop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DeLoach, D. A., "Knowing God in Melanesia: Schemas Relevant to Vernacular Scripture Engagement", Ph.D. Dissertation, Fuller Graduat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2016.
- De Waard, J. and Nida, E. A.,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Functional Equivalence in Bible Translating*, Nashville: Thomas Nelson, 1986.
- Douglas, M., "Cultural Bias", M. Douglas, ed., *In the Active Voi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82, 183-254.
- Douglas, M., *Risk and Blame: Essays in Cultural Theory*, London: Routledge, 1992.
- Edwards, J., *Multilingualism*, London: Penguin Books, 1994.
- Fauconnier, G. and Turner, M., *The Way We Think: Conceptual Blending and the Mind's Hidden Complexities*, New York: Basic Books, 2002.
- Grimes, J. D., "Incorporating Agency into a Cognitive Theory of Cultural Identity: Lessons from the Himalaya", Ph.D. Dissertation, Fuller Graduat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2018.
- Hiebert, P. G., Shaw, R. D., and Tiénou, T., *Understanding Folk Religion: A Christian Response to Popular Beliefs and Practices*, Grand Rapids: Baker, 1999.
- Hofstede, G.,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Cultures*, 2nd ed., Thousand Oaks: Sage, 2001.
- IANS, "Ritual Conducted on Malaysian Mountain to Appease Spirits," Updated June 20, 2015, https://zeenews.india.com/news/world/ritual-conducted-on-malaysian-mountain-to-appease-spirits_1616784.html.
- Law, S. K., *Revitalizing Missions on the Cusp of Change: Complex Systems Science Mazeways for Mission Theory amid Twenty-first Century Realities*, Lexington: Emeth Press, 2016.

- Lingenfelter, S., *Agents of Transformation*, Grand Rapids: Baker, 1996.
- Luchivia, J. O., "Contextualised Language Choice in the Church in Kenya", Ph.D. Dissertation, Fuller Graduat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2013.
- Marais, K., *A (Bio)Semiotic Theory of Translation: The Emergence of Social-Cultural Reality*, Abingdon: Routledge, 2019.
- Marais, K., *Translation Theory and Development Studies: A Complexity Theory Approach*, Abingdon: Routledge, 2014.
- Marais, K. and Meylaerts, R., eds., *Complexity Thinking in Translation Studies: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bingdon: Routledge, 2019.
- Nida, E. A.,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 Leiden: Brill, 1964.
- Nida, E. A. and Taber, C. 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2nd ed., Leiden: Brill, 1982; original edition, 1969.
- Nord, C.,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2nd ed., Abingdon: Routledge, 2018; original edition, St. Jerome Press, 1997.
- Post Wire Report, "Naked Tourists Blamed for Deadly Malaysian Earthquake.", *New York Post*, <https://nypost.com/2015/06/08/naked-tourists-blamed-for-deadly-malaysian-earthquake/>.
- Shaw, R. D., "Beyond Contextualization: Toward a Twenty-first-century Model for Enabling Miss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34:4 (2010), 208-215.
- Shaw, R. D., "Beyond Syncretism: A Dynamic Approach to Hybridity",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42:1 (2018), 6-19.
- Shaw, R. D., *From Longhouse to Village: Samo Social Change*, Case Studies in Anthropology Series, Fort Worth: Harcourt Brace, 1996.
- Shaw, R. D., "The Good, the Bad and the Human: Samo Spirit Cosmology", Adelaide: Paper presented at the Australi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ns, 1981.
- Shaw, R. D., "The Translation Context: Cultural Factors in Translation.", *Translation Review* 23 (1987), 25-29.
- Shaw, R. D. and Van Engen, C. E., *Communicating God's Word in a Complex World: God's Truth or Hocus Pocus?*,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2003.
- Shin, B. C. and Takagi Silzer, S., *Tapistry of Grace: Untangling the Cultural Complexities in Asian American Life and Ministry*, Eugene: Wipf and

Stock, 2016.

Shore, B., *Culture in Mind: Cognition, Culture, and the Problem of Mean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Silzer, S., *Biblical Multicultural Teams: Applying Biblical Truth to Cultural Differences*, Pasadena: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2011.

Silzer, S., “Caring for the Person in an Organizational Setting: New Directions in SIL Training”, Ph.D. Dissertation, Fuller Graduat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2001.

Sperber, D. and Wilson, D.,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reprinted, 1995.

Strauss, C. and Quinn, N., *A Cognitive Theory of Cultural Mea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Thompson, M., Ellis, R., and Wildavsky, A., *Cultural Theory*, Boulder: Westview Press, 1990.

Vermeer, H., “Skopos and Commission in Translational Action”, A. Chesterman, ed., *Readings in Translation*, Helsinki: Oy Finn Lectura, 1989, 173-187.

West, A. C. R., “Equipping for Decision-Making when Culture Clashes with Scripture”, Texas: Paper presented at Bible Translation at Dallas, 2013. 10. 15.

West, A. C. R., “Response to Death: The Powerful Influence of Assumptions, Relationships and Ritual on the Balangao Christians in the Philippines”, Ph.D. Dissertation, Fuller Graduat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2007.

West, A. C. R., and Shetler, J., “Culture Meets Scripture Report”, Kota Kinabalu: Sabah Theological Seminary, 2016.

<초록>

성서 번역에서 인지적 이슈들

— 인간 경험의 정황 안에 있는 성서 본문 —

인지 연구는 정신-뇌와 인간 행동 간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게도 성서 번역은 다분야적 작업으로서 인지적 과정의 영향을 받는다. 한편으로 특정 성서 본문에 의도된 의미, 다른 한편으로 특정 민족 집단의 정황에 기반해서 추론된 의미들에 관해 성서 번역자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질적이지만 상호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 두 환경들이 혼합됨으로써 성서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나오는 지식의 총화를 투영해 낼 수 있는가? 공저자들은 번역과 인간 행동의 관계를 반영하는 다양한 인지적 과정을 탐구한다. 우리의 목표는 번역된 성서 본문이 어떻게 인간의 인지 활동과 어우러지면서 특정한 정황에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이는 것이다.